

기세 오른 광주FC, 내친김에 3연승 간다

펠리페 멀티골 등 외인 맹활약... 수원FC 2-0 꺾고 2연승 신바람 매서워진 공격력 기대감...K리그1 내일 성남 상대 원정 경기

안방에서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한 광주FC가 성남FC를 상대로 K리그1 2021 9라운드 원정을 치른다. 거침없는 기세다. 지난 4일 이희균의 '극장골'로 인천을 상대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전용구장 첫 승을 장식한 광주는 7일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도 2-0 승리를 만들었다.

시즌 첫 연승과 함께 첫 무실점 경기까지 동시에 만들어내면서 6위까지 뛰어올랐다.

앞선 인천전에서 나란히 프로 데뷔골을 터트렸던 이희균, 엄지성이 선발로 나와 물오른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트리오'도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6라운드 제주전에서 마수결이 골을 기록했던 펠리페가 한 경기 쉬고 2, 3호골을 연달아 터트리면서 '멀티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새로 가세한 외국인 공격수 헤이스도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만들며 발돋움 않았다.

수원FC와의 경기가 끝난 뒤 김호영 감독이 "마지막 영입 선수였다. 내가 뽑았지만 잘 뽑은 것 같다"고 웃음을 터트릴 정도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장신 수비수 알렉스도 등장과 함께 아슬마토프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웠다.

수비라인을 재정비하며 시즌 첫 무실점 경기의 중심에 섰고, 정확한 퐁패스를 통해 공격 전환 속도도 높이며 공-수에 동시에 전력 강화를 이뤘다.

김호영 감독 역시 "활동량이 많고 불을 잘 지켜내 준다. 주변 선수들과 호흡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패스할 것은 한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한층 견고해진 전력을 보여준 광주는 연승 분위기를 살려 적지에서 3연승을 노린다.

현재 광주가 3승1무4패(승점 10)로 6위에 올라 있고, 성남은 3승3무2패(승점 12)로 승점 2점 차로 5위에 위치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이 자리를 맞바꿀 수도 있는 만큼 광주는 중위권 경쟁을 위해 총력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매서워진 장으로 촉촉한 성남의 방어망을 뚫어야 한다.

성남은 앞선 8경기에서 단 4실점만 하면서 탄탄한 수비와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다.

홍시후, 물리치, 서보민 등 핵심 선수들의 경기력도 물이 오르면서 강호 포항스틸러스, FC서울을 상대로 승리도 챙겼다.

하지만 화력에서는 광주가 앞섰다.

광주가 10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남은 5득점에 그쳐 리그 최소 득점팀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에서의 적극적인 압박과 안정감 있는 수비로 성남의 공격을 묶고, 빠른 역습을 통해 성남의 방패를 뚫는 게 광주의 전략이다.

광주는 지난 시즌 성남 원정에서 최고의 승리를 만든 기록도 있다.

정규리그 최종전 성남 원정에서 펠리페와 두현석의 골로 2-0 승리를 거두며, 기적처럼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확정 지었다.

광주가 기분 좋은 기억과 자신감을 앞세워 성남을 3연승 제물로 삼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3연승 행진을 하면서 중위권 경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8라운드 광주FC와 수원FC의 경기에서 광주 펠리페(가운데)가 후반전에 선제골을 넣고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8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 1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 전반전 한국 강채림(오른쪽)이 동점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악물고 싸운 여자축구, 중국에 1-2 분패

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강채림 동점골 후 PK 결승골 허용 13일 중국서 2차전...설욕 기대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도쿄행 티켓'의 최종 관문인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난적' 중국에 분패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중국과 PO 1차전 홈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1차전에서 패한 여자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후 5시 쑤저우 올림픽 센터 스타디움에서 PO 2차전을 치른다.

홈에서 2골을 내주고 패배를 떠안은 한국은 2차전 원정에서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해야만 역대 첫 올림픽 본선 티켓을 확보한다.

또 원정 득점을 2배로 쳐주는 규정에 따라 1골 차로 이기더라도 3골 이상 넣어야 하고, 2-1로 이기면 연장전을 펼친다.

중국은 초반부터 '골잡이' 장산산을 앞세워 한국의 골문을 위협했다.

중국은 전반 32분 골지역 정면에서 시도한 장산산의 오른발슛이 골키퍼 김정미의 슈퍼세이브에 막혔지만 1분 뒤 중국의 마젠이 투입한 크로스를 장산이 골지역 왼쪽에서 왼발로 거여이 선제골을 터트렸다.

한국은 전반 39분 지소연이 중원에서 불을 뿜아 역습에 나섰다, 지소연이 드리블을 하면서 전방으로 투입한 침투 패스를 강채림이 받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멋진 오른발슛으로 동점포를 터트렸다.

전반을 1-1로 마친 한국은 후반 2분 만에 지소연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에 의한 임선주의 헤더가 나왔지만 강도가 약했고, 후반 5분 골키퍼 이어반은 추후주의 단독 돌파를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벨 감독은 후반 17분 체력이 떨어진 추후주 대신 손화연(현대제철)을 공격직에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하지만 한국은 후반 26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손화연이 볼 경합 과정에서 중국의 탕자리의 발을 찼고, 주심은 관바로 호각을 불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중국의 왕샹은 후반 28분 정확한 오른발 슛으로 결승골을 터트렸다. /연합뉴스

한판승 행진 안창림 아시아 유도선수권 우승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연 은...도쿄행 청신호

도쿄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유도 대표팀 남자 73kg급 간판 안창림(필룩스)이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선수권대회에서 '한판승 행진'을 펼치며 우승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연도 은메달을 따 올림픽 출전을 향한 청신호를 켜고 있다.

안창림은 7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가즈프름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에서 2회전과 준결승, 결승전을 모두 한판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창림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였고, 마크마드베코프는 수비 위주로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다가 반칙 2개를 받았다.

안창림은 경기 종료 23초를 남기고 마크마드베코프를 한판 업어치기 한판으로 누르며 우승했다.

재일교포 3세인 안창림은 도쿄올림픽 우승을 노리는 한국 유도의 간판이다.

여자 63kg급 한희주(필룩스)도 금메달을 획득



안창림
여자 70kg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과 남자 81kg급 이문진(필룩스)은 은메달, 여자 63kg급 조목희(한국마사회)는 동메달을 목에 걸어 올림픽 랭킹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음바페 2골' PSG, 뮌헨에 3-2 승...챔스리그 4강 '한걸음 더'

'프랑스 강호' 파리 생제르맹(PSG)이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에 한발 다가갔다.

PSG는 8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뮌헨과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멀티골과 마르키누스의 득점포를 앞세워 3-2로 이겼다. 지난 시즌 UCL 결승전에서 뮌헨에 무릎 꿇었던 PSG는 1차전 원정 승리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완벽한 설욕을 노리는 PSG는 14일 뮌헨을 홈으로 불러 2차전을 치른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세르주 나브리가 각각 부상과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장한 가운데 홈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 뮌헨은 2차전에서 반전을 노려야 한다.

전반 3분 네이마르가 오른쪽으로 살짝 내준 공을 음바페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차 넣었다.

전반 28분에는 뮌헨이 역습에 나서려는 찰나, 공을 잡은 네이마르가 뒤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마르키누스가 이를 골로 연결해 2-0으로 앞섰다.

뮌헨은 전반 37분 벤자맹 파바르의 크로스를 받은 추포모팅이 헤딩슛으로 만회 골을 뽑았다.

한 골 차로 틈을 좁힌 뮌헨은 후반 15분 토마스 뮐러의 헤딩 동점골로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음바페가 PSG의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23분 공을 몰고 페널티 지역으로 쇄도한 음바페는 상대 수비사로 오른발 슛을 시도해 결승골을 작성했다.

첼시(잉글랜드)는 스페인 세비야의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포르투(포르투갈)와 8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고질라 VS. 콩
3관	자산어보, 더스트맨, 최면
4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5관	모탈 컴뱃
6관	모탈 컴뱃
9관	자산어보, 최면
7관 세세커피	딩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미나리
8관 세세커피	더 파더, 비밀의 정원, 파넛 버터 필콘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